

LX 광주전남본부, 목포대에 측량 전산장비 기증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욱)는 최근 지적분야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 지적학과에 교육용 측량 전산장비 5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된 측량 전산장비는 펜컴퓨터로, 지적관련학과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습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욱 본부장은 "지적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전산 실습을 통해 향후 취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목포대 지적학과는 국립대학 중 지적 및 공간정보에 특성화된 학과를 설치한 유일한 대학으로, LX 광주전남본부는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목포대와 MOU를 체결해 지적 및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컨설팅과 우수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선대 LINC3.0사업단, 'KBO NINE 시즌' 성과공유회



조선대학교 LINC3.0사업단이 지난 6월 시작한 'KBO NINE 시즌 2023 PLAN B(e the one)'가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최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KBO 나인 시즌 2023'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단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및 지역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역 청년 창업자와 연계된 구단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ESG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각 구단은 참여 학생들을 구장에 초청해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구단과 ESG 경영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타 대학-전공 학생들과 융합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융·복합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5개 대학 학생 200명이 인프라 및 서비스에 기반한 문제해결 및 지역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국환 별세



'아리조나 카우보이' 등을 히트시키며 1950년대 큰 사랑을 받은 원로가수 명국환(사진)이 지난달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6세. 2일 대한가수협회에 따르면 명국환은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그간 홀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1927년생인 고인은 1950년대 '백마야 우지마라' '아리조나 카우보이' '내 고향으로 마치는 간다' 등의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 한국전쟁 이후 신흥민들의 아픔을 담은 노래들이었다. 1957년에는 영화 '김삿갓'의 주제곡인 '방랑시인 김삿갓'을 불러 히트시켰다. 1976년에는 원로가수 친목 모임인 동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5년 제39회 가수의 날 공로상, 2014년 제5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전남문화재단 '나는야 나눔 히어로' 통해 폐장난감 기부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31일 장난감 기부 캠페인 '나는야 나눔 히어로'를 통해 장난감 400Kg을 사회적기업 코끼리 공장에 기부했다. **추후 장난감을 세척 및 재활용해 지역사회에 나누거나 플라스틱을 분해해 재생소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남도어린이페스타 공연을 진행하며 남도소리올림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취지에 공감한 489명의 관람객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며, 어린이 기부자들은 "고장 난 장난감이지만 다시 생명이 깃들길 바란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장난감으로 돕는 나눔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수영대회 개최



광주시 북구는 2일 풍향동 반다비체육센터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수영중독 저변 확대를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광주 북구 제공>

이명노 광주시의원 헌혈홍보위원 위촉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이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이명노의원(가운데)을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헌혈홍보위원으로서 지역 내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평소 헌혈과 혈액사업에 관심을 갖고 헌혈유공장 은장(헌혈 30회) 수상, 개인 SNS를 통해 헌혈 참여 독려 등 혈액사업 증진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 "헌혈은 피를 나누는 것을 넘어 연대와 나눔의 상징"이라며 "지역 내 헌혈 문화 확산 및 실질적인 헌혈 참여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for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 (음 7월 20일 乙丑)
36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8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피는 안목이 절실하다. 60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되 대세에 편승한다. 72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84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인식을 잘해야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 행운의 숫자 : 04, 93
37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49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61년생 본심과는 달리 부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3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85년생 방심한다던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97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2, 53
38년생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주관을 가져라. 50년생 방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화근이 될 수 있으니, 62년생 귀명에도 별을 날이 있으니, 74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생산적인 판국으로 접어들겠다. 86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할 뿐이다. 98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55
39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51년생 지금의 판도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3년생 반복되면서 실 틈을 주지 않는다. 75년생 지나 간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87년생 지나칠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99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 행운의 숫자 : 36, 56
40년생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52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격이다. 76년생 답답하겠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88년생 걸치레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00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여라. 행운의 숫자 : 30, 91
41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53년생 쌍방이 피해를 볼 뿐이니 어찌하였든지 간에 소모적인 국면은 피해야 한다. 65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77년생 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 89년생 중요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01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42, 94
42년생 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54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니, 66년생 변경하지 말고 현행대로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78년생 가짜 판국에서 진짜가 파문하는 예상함이 보인다. 90년생 빈틈없이 준비한 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판국이다. 02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09, 89
43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55년생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 67년생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월하다. 79년생 속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연만 되는 동세이다. 91년생 불가피한 인연으로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 03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지를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8, 88
44년생 행운의 별이 비취고 있으니 길하라. 56년생 과신은 소모적인 행국을 조성할 뿐이다. 68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80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92년생 굳이 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알고만 있으면 된다. 04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4
45년생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음은 감안해야겠다. 57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69년생 평소 애용하던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니 잘 살펴라. 81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93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05년생과 같게 진행시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0, 63
34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46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8년생 제반 사정을 차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70년생 상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도 가닥이 잡힌다. 82년생 안전을 도모하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94년생 실속은 없고 걸만 번지르르하겠다. 행운의 숫자 : 00, 74
35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행국에 놓인다. 47년생 파종은 힘들더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59년생 무의식중에 흘린 말이 말쑥한 소지가 될 수 있다. 71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뜻밖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95년생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 05, 59